

8. 인도네시아 식생활 변화로 인한 밀가루 및 밀가루 음식 소비 증가

자카르타지사

주요내용

▶ 인도네시아 세계 최대 밀 수입국 부상

- 미국 농무성(USDA)에 의하면 2018년 인도네시아 밀 수입량이 1,250만 톤에 달해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인도네시아 밀 수입량은 2016년 1,050만 톤에서 2017년 1,180만 톤으로 증가했다.
- 세계 최대 라면 생산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는 아프리카를 포함해 전 세계로 라면을 수출하고 있지만 그 원료인 밀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. 인도네시아 기후는 밀 재배에 적합하지 않고 정부의 인식도 부족하여 자국 내에서는 밀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.
-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주식인 쌀의 자급자족을 위해 쌀 소비를 줄이고 빵과 면류 소비를 장려하는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지만, 밀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오히려 식량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.
- 인도네시아 제분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옥수수 재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옥수수 수입을 제한하면서 사료 원료로 옥수수 대신 밀을 사용하는 업체가 증가하여 밀의 수입이 더욱 증가하였다고 밝혔다.

▶ 식생활 변화로 인한 빵, 스낵, 면류 소비 증가

- 미국 농무성과 인도네시아 제분업계는 밀 수입의 증가 요인으로 식생활이 서구식으로 변화한 것과 사료용 밀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꼽았다. 인도네시아는 쌀이 주식이지만 중산층 성장과 빠른 도시화로 인해 라이프 스타일이 서구식으로 바뀌면서 면류, 찌리얼, 빵, 스낵 등 밀가루로 만든 음식의 소비가 늘고 있다.



▲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면류(현지산, 한국산)



▲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낵, 빵

- 인도네시아 최대 식품회사 인도푸드(PT Indofood Sukses Makmur)는 2018년 밀가루 매출이 5~6%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여 제분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5,300억 루피아(약 418억 원)를 투자한다고 밝혔다. 2017년 인도푸드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제분사업이 22%를 차지하는 등 인도네시아 밀가루 소비 증가에 따른 업계 관심도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.

▶ 인도네시아 제빵 시장

- 밀가루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빵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. 현재 인도네시아 전체 제빵시장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가 시장의 약 50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제빵공장에서 만드는 제조 빵이 33%, 동네 제과점 등이 약 18%를 점유하고 있다.
- 최근 인도네시아 빵 소비량의 원인을 살펴보면 △ 제빵업체들의 생산량 증가, △ 프랜차이즈 제빵업체들이 중소도시까지 매장을 확대한 점, △ 소비자구매력이 강한 중산층 증가, △ 현대화되고 서구적인 라이프 스타일 추구, △ 샌드위치와 디저트용 케이크 등 빵을 재료로 한 음식을 판매하는 카페와 레스토랑 급증, △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커피와 함께 빵이나 쿠키를 먹게 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.



▲ 인도네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빵 프랜차이즈 매장

* 참고자료

- 자카르타경제일보 「인도네시아, 최대 밀 수입국으로 부상」 (2018.02.14.)
- 자카르타경제일보 「인도푸드, 제분공장 생산 능력 확대에 5,300억 루피아 투자」 (2018.02.23.)
- Rabobank 「인도네시아 제빵시장」
- USDA GAIN REPORT 「인도네시아 곡물시장」

시사점

- 주식에 쏠린 인도네시아에서 밀가루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밀가루 베이스 식품 수출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 특히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한국 라면, 스낵, 빵 등은 맛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어,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.
- 한국의 한 제빵업체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5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, 인니 3대 공항(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, 수라바야 주안다 국제공항, 발리 응우라라이 공항)에 모두 입점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제빵업계에서 한국산의 시장 확대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인다.